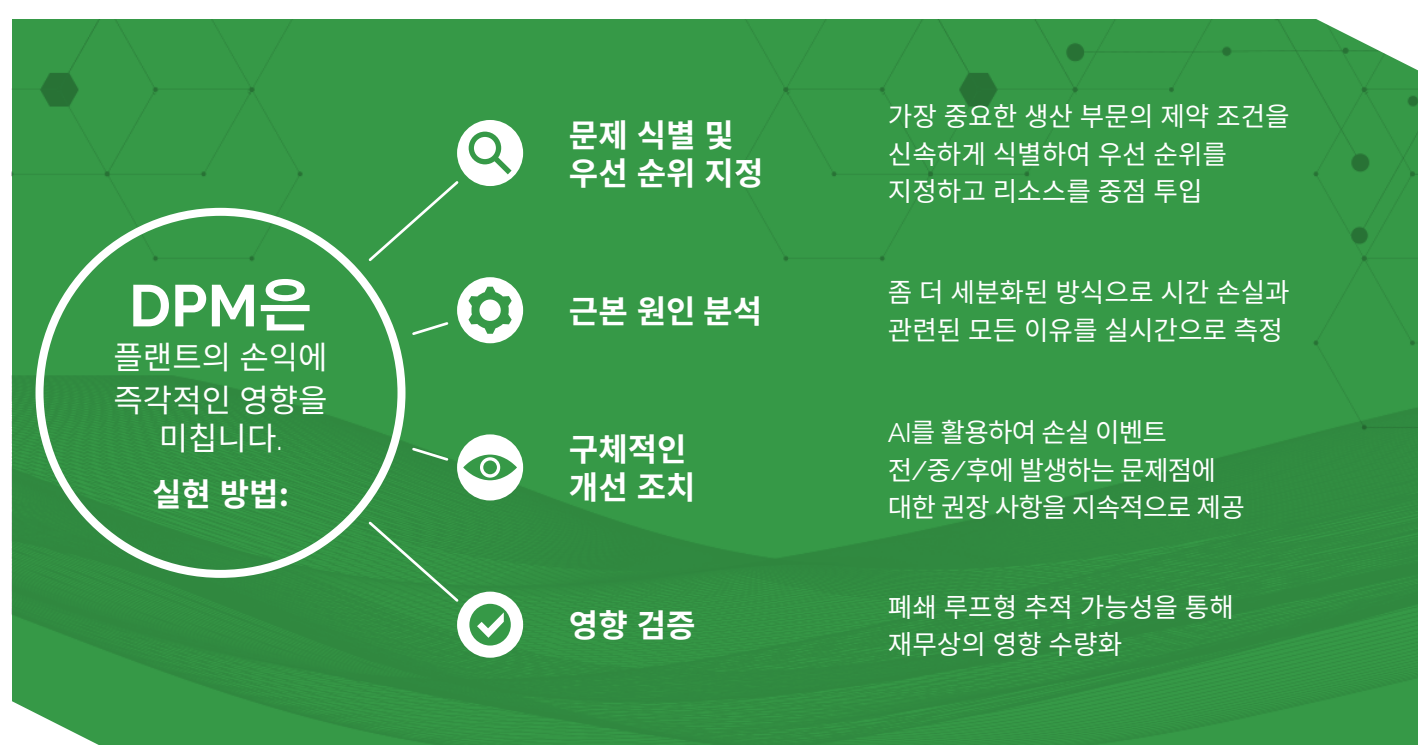


OEE로 시작하십시오. 하지만 거기서 멈추면 안됩니다.

OEE 비율을 통해 생산 부문에 문제가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.
하지만 상황을 계속해서 올바른 방향으로 이끌려면
DPM(Digital Performance Management)이 필요합니다.

DPM은 증상이 아닌 근본 원인을 밝혀냅니다.

다음 예에서 OEE만 측정하면 패키징 라인이 문제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. 하지만 계획되지 않은 다운타임이 근본 원인이라면 이를 파악할 수 있을까요? DPM은 문제의 핵심을 파악하므로 가장 영향력 있는 결과를 도출할 수 있습니다.



실질적인 결과를 도출하는 솔루션:

제약 제조업체에서 DPM이 어떤 역할을 했는지 살펴보십시오.



[자세히 알아보기 →](#)